



월드컵 소식

골이 안 터져요...경기당 2.34골

1990년 대회 제외 역대 최저골 행진

무경을 열자마자 골 '폭죽'이 터졌던 2006독일월드컵축구가 어느 새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64경기 가운데 정확히 절반인 32경기를 끝낸 20일 오전 현재 터진 경기당 평균 득점은 2.34골(총 75골).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 당시 2.52골을 밑돌고 있다.

2.34골은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서도 지난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당시 2.21골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치로 오프사이드 규정 완화 등으로 과거보다 많은 골이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나마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사우디 아라비아, 스페인-튀니지 두 경기에서 무려 8골이 터져 수치가 올라갔을 뿐 전반까지만 해도 2.23골로 1990년 대회 기록도 갱신했다.

남은 조별리그와 16강 토너먼트를 치러질 2라운드에서 많은 골이 터질 수 있

지만 한번 빠곳하면 탈락하게 되는 16강 전부터는 '골 폭풍'의 희생양이 필만한 약팀들이 거의 없어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적인 득점 저조와 함께 개인득점 경쟁도 시들해진 느낌이다. 튀니지전에서 스페인의 페르난도 토레스가 2골을 넣어 3골로 단독 선두에 올랐지만 지난 2002년 대회에서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가 첫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치고 나갔던 것같은 화끈한 맛은 덜하다. 또 지난 대회에서는 클로제 외에도 파울레타(포르투갈)가 폴란드전에서 세 골을 몰아치는 등 헤트트릭이 두 번이나 나왔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아직 이 기록도 잠을 자고 있다.

4년전 각 팀들이 조별리그 두 경기를 끝냈을 당시에는 클로제가 4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3골을 넣은 온 달 토마스(덴마크), 파울레타, 크리스티안 비에리(이탈리아)는 나란히 2위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토레스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2골을 넣은 10명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FIFA, 부상선수 보상키로

이번 대회부터 시행

소속 프로팀 결장때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번 월드컵부터 경기에서 부상한 선수가 부상 때문에 다음 국내리그에서 소속 프로팀의 경기에 결장할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20일 독일 일간지 쾰른에 차이빙(SDZ)에 따르면 FIFA는 월드컵 경기 부상 선수가 다음 국내리그에서 소속 프로팀에서 뛰지 못할 경우 보상액으로 약 1천만 유로를 준비했다. 이 보상액은 월드컵 우승국에 돌아가는 상금의 보험 출처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월

드컵 출전국의 축구협회에서 간접적으로 거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프로축구팀이 얼마나 받아내는 어떤 선수가 얼마나 다치지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독일 대표팀 주장 미하엘 발라크가 월드컵 경기 중 다쳐 새로운 소속팀 월드컵 경기에서 몇개월 동안 결장하게 된다면 호주의 후보 골키퍼가 다쳐 결장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식이다. 다만 평가전에서 다친 경우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FIFA는 밝혔다.

FIFA는 또 국가대표팀 선수를 보유한 모든 프로축구팀에 보함에 들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보상액이 여기서 나올 지 아니면 FIFA 출자금에서 나올 지는 각 사별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브라질 "일본전 일부 주전 제외"

16강 이후 대비

선수 보호차원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삼바축구' 브라질이 일본과 조별리그 최종전에 일부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AP통신은 20일 이같이 전하며 카를루스 아우베르투 파헤이라 브라질 감독이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후보 선수들을 남은 경기에 기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헤이라 감독은 "의료진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 나는 16강 이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후보 수비수 시시뉴 역시 "대표팀에 선발된 뒤 내내 경기에 뛰는 것만을 생각했다. 우리는 준비돼있고 불러주 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의욕을 보였다.

주니뉴 역시 "모든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든 선수들이 단 한 경기라도 뛰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라고 감독의 계획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파헤이라 감독은 "선수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우리는 이미 16강에 진출했다"고 말하면서도 호나우두는 일본 전에 선발로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아마 45분이나 70분만 뛰면서 경기 감각을 익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다. 그는 뛰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의 이처럼 23일 일본전 승패에 관심이 없는 모양새는 반드시 이어야 하는 일본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무1패인 일본은 브라질을 2골 이상 차이로 이기고 호주(1승1패)-크로아티아(1무1패) 전이 무승부로 끝나거나 크로아티아가 이겨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페인어권 국가 '동유럽 천적?'

3전 3승 기록

스페인어권 국가는 동유럽의 천적(?)

2006 독일 월드컵 축구 본선 32개국 가운데 '무적함대' 스페인을 포함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16강 진출이 확정된 8개팀 중 스페인어권은 스페인(H조)과 영연한 우승후보 아르헨티나(C조), 남미 북빙 예과도트(A조) 등 3개국. 모두 2연승으로 일찌

감치 16강 티켓을 얻었다.

같은 언어권인 멕시코도 D조 2위(1승1무)여서 16강 전망이 밝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 중 세르비아-몬테네그로(C조)와 폴란드(A조)는 2연패를 당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7개팀에 포함됐다. 1승1패를 기록하고 있는 체코(B조)와 우크라이나(H조), 1무1패가 두드러진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동유럽은 스페인어권과 맞대결에서 3전 전패의 열세를 말라듯 제물이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진흥 정영일 12K 역투...우승 견인

(탈삼진)

7이닝 무실점 'MVP'...10년만에 대회 3번째 정상 차지



진흥고가 10년만에 무등기를 품에 안았다.

진흥고는 20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주최) 결승전에서 구미전자공고를 8-0으로 물리쳤다.

지난 96년에 이어 대회 3번째 우승을 차지한 진흥고는 전년 대회 준우승의 아픔을 깨끗이 털어냈다.

창단 4년만에 첫 전국대회 결승에 오른 구미전자공고는 '고교 특급' 투수 정영일이 버티고 있는 진흥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진흥은 1회 나성용의 2루타로 첫 포문을 열었다. 다음 타자 강병운의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얻었다.

이어 7회에는 선두타자 정영일의 우중간 2루타를 시작으로 4안타, 볼넷 1개를 묶어 3점을 뽑아내며 사실상 승부를 마감했다. 진흥은 8회 1점, 9회 3점을 보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구미전자고는 3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진흥고 정영일의 삼진 퍼레이드에 놀려 우승의 꿈을 접어야 했다.

구미전자고는 0-1로 뒤진 3회 상대 수비의 연속 송구 실책으로 무사 1,3루의 역전 기회를 만들었으나 1루 주자가 험살 아웃고 이어오는 문승환과 김병재도 연속 삼진으로 물러나며 우승 '9부 능선'에서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2007년 KIA 타이거즈 신인 1차 지명자인



본사 김진영 이사(오른쪽)가 20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막을 내린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진흥고 최첨단 선수에게 우승기를 전달하고 있다.

위진표기자 jrwi@kwangju.co.kr

정영일(3년)은 140km대 중반을 오가는 직구를 앞세워 낱자 큰 커브와 슬라이더를 적절히 섞어 7이닝 1피안타, 1볼넷, 12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투를 선보였다. 타석에서도 5타수 3안타, 1득점의 불발방어를 휘두른 정영일은 우승의 주역으로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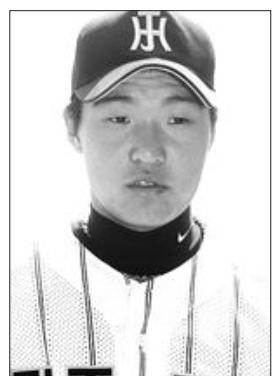
◇무등기 대회 전적 및 개인상

▲우승=진흥고 ▲준우승=구미전자공고 ▲공동 3위=경동고, 부산공고 ▲최우수선수상=정영일(진흥고) ▲우수투수상=임요한(진흥고) ▲타격상=최현수(14타수 7안타·부산공고) ▲미기상=김병재(구미전자공고) ▲감투상=홍효의(구미전자공고) ▲수훈상=강병운(진흥고) ▲최다안타상=최

현수(7개·부산공고) ▲최다점수상=정영일(5타점·진흥고) ▲최다도루상=최현수(5개·부산공고) ▲최다홈런상=나성용(1개·진흥고) ▲감독상=박철우(진흥고 감독) ▲지도상=허양욱(진흥고 야구부장) ▲공로상=성준현(진흥고 교장) ▲심판상=김영호(광주시 야구협회) ▲고(故) 최인식 선수상=정영일(진흥고)

"봉황기 대회서도 우승 주역 되겠다"

MVP 진흥고 정영일 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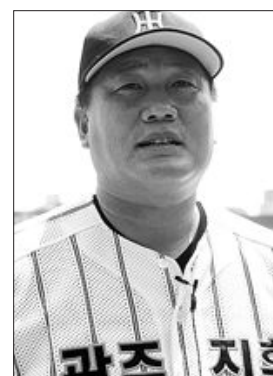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에요" '고교 탈삼진왕' 정영일(18·3년)은 이번 대회동안 탈삼진왕 면모를 발휘하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정영일은 이날 188cm 96kg의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140km대 중반을 오가는 빠른볼과 130km대의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구미공고의 타선을 잠재웠다. 정영일은 올 대통령배 대회서 탈삼진 23개로 한국야구 신기록을 수립하며 야구 전체의 탄생을 알렸고 2007년 KIA타이거

즈의 신인 1차 지명됐다. 정영일은 "청룡기 대회 준우승의 경험이 이번 대회에서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남은 대망기와 봉황기에서도 꼭 우승의 주역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임 후 첫 우승 너무 감격스럽다"

진흥고 박철우 감독



"너무 힘든 싸움이었는데 10년만에 무등기를 되찾아와 기쁨이 두배입니다" 올 초 진흥고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박철우(42·사진)감독은 "부임 후 첫 전국대회 우승을 거둬 너무 감격스럽다"며 뜬금없는 감추지 못했다. 박 감독은 "올 동계훈련을 충실히 임한 게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면서 "선수들에게 1,2구제를 노리는 공격적인 타격을 요구했는데 잘 통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무등기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주력하겠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수비의 낮은 송구 실책과 빈트 실수 등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통산 40승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올 시즌 가장 좋은 투구를 펼치며 3전 4기만에 개인 통산 40승을 달성했다.

김병현은 20일 콜로라도주 덴버 쿼어스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인터리그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슈아내며 4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그러나 3-0으로 앞선 7회 들어 갑자기 흔들리며 덴 존슨과 바비 킬티에게 안타와 볼넷을 허용한 뒤 무사 2루에서 라몬 라미레스로 교체됐다. 라미레스가 병살타를 엮어 내면서 1점도 주지 않고 이닝을 마무리, 김

병현의 자책점은 없었다. 콜로라도가 7-0으로 이기면서 김병현은 통산 349번째 등판에서 마침내 40승(44패)째를 거뒀다. 선발로는 48경기에서 나서 13승(20패), 구원으로는 27승(24패)을 마크 중이다. 또 지난달 29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3승을 신고한 뒤 3번의 등판에서 2패를 안았던 김병현은 이날 들어 첫 승을 올리며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았다.

시즌 성적은 4승4패, 평균자책점은 5.40에서 4.84로 좋아졌다.

김병현의 승리는 특히 파죽의 10연승을 내달리고 있는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1위 오클랜드를 상대로 통산 40승과 함께 팀의 3연패를 끊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3위...역대 최고 성적

전남은 13위 부진

소년체전 어제 폐막

광주가 20일 폐막된 제3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29, 은 15, 동 26개를 획득하며 지난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순위 3위의 기염을 토했다.

전남은 금 19, 은 23, 동 22개를 따내 목표(금 23개) 달성에 실패하며 지난대회보다 세 단계 내려 앉은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

광주의 종합3위 성적은 지난 1992년 소년체전 부활 이후 최고의 성적으로 지난해 보다 무려 10계단이나 수직상승했으며 지난 1986년 광주·전남 분리 이후 역대 사상최고의 성적이다.

광주 신광중 정구팀은 대회 마지막날 전남 선발을 2대 0으로 제치고 우승하며 금메달을 땀했다. 송원여중 배구팀도 경기 원곡

중을 2대1로 제압하고 소년체전 출전 17년 만에 값진 금메달을 보냈다.

또 부산 강서하키장에서 열린 하키 남중 결승에서 송광중은 경남 김해서중을 1-0으로 누르고 창단 3년만에 지난 5월 전국하키 종합대회 우승이후 소년체전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전남은 당초 기대했던 기록종목의 육상과 체조, 단체종목(축구, 배드민턴 펜싱), 투기종목(씨름, 레슬링) 등의 부진이 발목을 잡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남은 대회마지막날 김대용(전남 체육중)과 정구 남초 전남선발, 배구 남초 순천대석초, 탁구 여중 전남선발이 마지막 선전을 펼치며 금메달을 추가했으나 하위권으로 처진 성적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대회 종합우승은 경기도에 돌아갔으며 내년 제36회 전국소년체전은 경북에서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1일수) ▲메이저리그(시카고C-클리블랜드)

(07 : 55·Xports), <LA에인절스-샌프란시스코>(11 : 05·Xports)

▲프로야구<한화-LG>(18 : 00·KBS SKY SPORTS), <삼성-롯데>(18 : 10·SBS 스포츠), <KIA-두산>(18 : 30·MBC ESPN)